

아름다운 절 아름다운 스님 이연정 지음 | 민족사 | 1만2000원



# 스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 월간 '해인'에 실린 33인 스님 인터뷰 기사 묶어

많은 불자들은 스님들에게서 평범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 스님들의 삶의 얘기를 들으며 잔잔한 감동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결코 화려하지도 않지만 화려하지도 않는 스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불교를 알 수 있고 자신의 수행을 다시 한번 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절 아름다운 스님>은 월간 <해인>의 '호계삼소(虎溪三笑)'에 소개했던 스님 33명의 인터뷰 기사를 모은 책이다. 33인 스님이야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수행자의 모습과 운동권 스님, 농사꾼 못지 않은 농부 스님도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연정씨는 "내가 만난 대다수 스님들은 다 고집쟁이들이었다. 주위 시선에 아랑곳없이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외골수들이었다.

음통성과 재주와 가치가 판치는 세상에서 아직도 원칙과 상식, 도덕을 받드는 자유인들이었다"고 말한다.

덧붙여 "어느 상황이 닥쳐도 훌훌 털어버리는 활기찬, 앞뒤 재지 않는 무대백, 명분이 서지 않으면 남떠러지인 줄 알면서도 발길을 돌리지 않고 꿋꿋하게 길을 가는, 채우기보다는 버림을

선택하는 버리기 도사들, 성향과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자유인들"이라고 단정한다.

책은 '수산지중 스님(백양사):참선과 차 마시는 정신은 하나', '원승 스님(백송사 서암):어려울 때는 불보살의 힘을 빌려야지', '지광 스님(능인선원):신도를 가르쳐서 부처님을 만들자', '진옥 스님(석천사):그대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가', '해능 스님(율사)의 '계율을

지키는 마음이 참회하는 마음' 등으로 구성됐다.

또 진월 스님(한국 종교연합 선도기구의 '이 사회는 더불어 살고 호흡하는 곳입니다', 도각 스님(민족공동체추진본부) '걸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영담 스님(석왕사)의 '뚝뚝기는 쉬워도 밭을 빼는 것은 쉽지 않다', 지완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의 '노인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가 실려있다.

이밖에도 철운(법주사), 법장(선운사), 상덕(형암사), 각안(효상좌), 현장(대원사), 원민(능엄학림), 지현(정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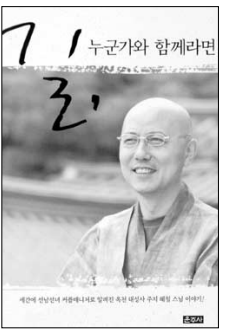
사), 현웅(육조사), 진원(강사) 탁연(조계종 문화부장) 철산(내소사) 원오(군법사), 정년(월정사), 인목(어산학교), 원각(원당암), 지산(봉인사), 도영(웅담선원), 노현(각화사), 미산(중암승가대), 성원(선원사), 정년(낙산사), 선재(선재사찰음식연구원), 원명(삼화사), 금강(미항사) 스님이 소개된다.

이연정씨는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월간법회', '불광', '대중불교', '해인' 등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공부중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 '커플매니저' 헤철 스님의 '인연'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 헤철 스님 지음 | 운주사 | 1만2000원



'인생은 나와 인(因)과 연(緣)을 맺을 수 많은 사람, 수 많은 환경과의 공존의 길이다. 다른 사람, 자연 환경이 아프면 궁극적으로 나도 아플 수밖에 없다. 주변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계의 주인공이다. 함께해서 행복한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결혼 저령기 선남선녀 10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인터넷 중매카페 '따뜻한 만남(http://cafe.daum.net/dasungsa)'를 운영하며 커플매니저로 나선 헤철 스님(육천 대성사 주지).

스님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 한발짝 다가서는데 조금이라도 올림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인연맺어주기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스님은 선남선녀들을 커플로 맺어주기 위해 매주 일요일 20~30명의 회원을 사찰로 불러 '선남선녀 특별법회'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스님은 "인연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은 그동안 중매 사이트 운영 등 포교와 교화 현장에서 부딪치고 느꼈던 삶의 소회, 법문, 기고문을 모아 엮은 것이다. 총 5부로 구성된 책의 구성은 '일체 만물이 다 부처일세' '구름이 겹치면 파란 하늘이 보인다' '당신이던 좋겠네' '여시아문' '선남선녀 이어주는 커플 매니저' 등으로 나뉘어 있다.

## 대승불교로 폰 아비달마구사론

아비달마구사론 계통 박인성 역 | 주일출판사 | 3만2000원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계통(界品)>은 바수반두(世親, 320~380)의 아비달마교사바수아의 산스크리트본, 진제(眞諦, 499~569)의 아비달마구사론, 현장(602~664)의 아비달마구사론의 첫째 장을 번역한 것이다.

계통은 만유의 근본이 되는 제법의 본질體, 체에 대해 분별하고 있는데, 먼저 실천적 입장에서 유위법과 무위법을, 이론적 입장에서 유위법과 무위법을 분류한다. 그리고 다시 제법을 5온(蘊)·12처(處)·18계(界)로 분류 해석하고, 나아가 18계에 대해 유견(有見)·무견(無見), 유대(有對)·무대(無對), 선·불선·무기 등 여러 갈래로 그 특징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저자인 박인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우리 불교가 중국 불교를 거처다 보니 부처님의 정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의 대승불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진제의 한역본과 현장의 한역본을 옮기면서 산스크리트본의 의미와 다른 곳에는 밑줄을 그어 설명해 놓았다.

### yosiamun.com 추천도서

- 반야의 종소리: 도피안사, 권덕 스님, 1만5000원
  - 낙낙한 마음으로: 밀알, 경선 스님, 1만4000원
  - 선 수행의 길잡이: 효림, 밀타 권스님, 6000원
  - 소동과: 김영사, 스이후이 외 공저, 1만2000원
  - 절수행일문: 조계종출판사, 불학연구소, 6000원
- 도서주문 (02)2004-8215

## 현대 고승 9인 삶·사상과 만난다

현대고승법어 총서(9권) 밀알출판사 10만4000원



사막해져 가는 현대사회와, 물질문명이 사회의 최고선(最高善)으로 여겨지는 지금, 삶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반성을 통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렇다면 빼놓을 수 없는 업적과 선·교·율(禪·教·律)에 정통한 수많은 고승들의 이야기를 통해 답을 찾아보자.

이번에 개정 증보판으로 발행된 <현대고승법어 총서>는 알기 쉬운 법어(法語)와 정신적·사상적 가치 정립을 위한 불교의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서에는 9명의 근 현대 고승들의 생애와 사상이 담겨있다.

1권 <문필장을 만져 보거라>는 경봉 스님의 법어 중에서 불교의 입문과, 수행, 삶의 길, 반야심경을 집대성했다.

2권 경산 스님의 <낙낙한 마음으로>는 선·교·율(禪·教·律)의 가르침을 쉽게 풀어 해석한 새벽빛 같은 법어 모음이며, 3권 <마음에서 마음으로>는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이바지한 청담 스님의 법어집이다.

4권 <머물며 흘러가며>는 정좌한 채로 입적한 구산 스님의 생전 법어를 모았으며, 5권 <길을 묻는 그대에게>

해암 스님의 사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6권 해안 스님의 <마음이 곧 부처>는 마음의 본체를 알고 다스리는 방법이 담겨 있으며, 7권 청화 스님의 <순간에서 영원으로>는 인간의 본질과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8권 관공 스님의 <화엄의 바다>는 화엄경의 심오한 의미를 풀어주며, 9권 묵담 스님의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청정한 계행과 수도, 정진과 수행력으로 운수남자의 본분을 다한 스님의 외침이 실렸다.

김원우 기자

## 우학 스님의 법문 묶어

빛깔있는 법문 우학 스님 지음 | 좋은인연 | 5000원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의 법문집이 출간됐다. <우학 스님의 빛깔 있는 법문>이 그것.

제 1권부터 5권까지 시리즈로 출간된 법문집은 1권부터 3권까지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의 스님의 법문 중 대중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모아 년도별로 묶었고, 4권은 법문집에 누락되었던 법문들을 다시 발췌해 만들었으며, 5권은 화엄경 강의 내용을 담았다.

법문 당시의 현장감을 살려 침묵 없이 그대로 실은 스님의 법문집은 장건 15년 만에 영남불교대학을 10만 불자들이 붐비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심 속

수행도량으로 성장시킨 스님만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또 포교와 수행의 바른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삶에 희망을 주는 기도와 참선의 바른 법을 알려주고 있다.

"불서는 '깨달음의 문'이요, '엘리트불자의 문'이며, '포교의 문'이고 '공덕의 문'이라며 평소 불자들의 불서읽기를 권장하는 우학 스님은 "마음을 비우고 찬찬히 새겨 읽는다면 가슴 시원한 깨달음의 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필자로서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 우학 스님의 빛깔 있는 법문

국판 | 144쪽 | 전 5권 세트 - 각권 5천원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의 잔잔한 사자후
- 우리나라 최대 도심사찰의 성장 노하우가 들어있음.
- 삶에 희망을 주는 기도, 참선의 바른 법 제시

조계종 영남불교대학·대관음사 053) 474 - 8228 [부속출판사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 475 - 3707]

##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빙의 사전 제대로 알아!"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